

清代 前期의 活字印刷

曹 炯 鎮*

目 次

- | | |
|--------------------|--------------------|
| 1. 緒言 | 5. 乾隆年刊(1736-1795) |
| 2. 順治年間(1644-1661) | 6. 嘉慶年刊(1796-1820) |
| 3. 康熙年間(1662-1722) | 7. 結言 |
| 4. 雍正年間(1723-1735) | 8. 書影 |

1. 緒 言

중국에서 활자를 이용한 서적의 인쇄는 宋代에 시작하여 元代에도 계속되었으나 그의 실물은 오늘날 거의 전하지 않는다. 활자인쇄가 성행하여 그의 실물도 현존하고 있는 것은 明代와 清代의 일이다. 그 가운데 清代의 활자인쇄는 金屬活字·木活字·土活字 등을 모두 포함하고 있을 뿐만아니라 그 발달양상이 文化史的으로나 技術史的으로 朝鮮時代와 대단히 흡사하여 이를 비교연구할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다. 본 연구는 이를 위하여 우선 清代의 前期에 해당하는 順治(1644-1661)·康熙(1662-1722)·雍正(1723-1735)·乾隆(1736-1795) 및 嘉慶年間(1796-1820)의 活字印刷技術에 대하여 考究하고자 한다.

2. 順治年間(1644-1661)

清代에 이르러 맨처음 활자로 인쇄한 서적은 順治年間に 木活字로 인쇄한 (明)孫

* 강남대학교 문헌정보학과 조교수
접수일자 : 95. 11. 9.

賁의 「義門鄭氏道山集」이다.¹⁾ 그러나 이 木活字의 제작자와 印出지역 등은 모두 알 수가 없다.

3. 康熙年間(1662-1722)

康熙 9(1670)년에 木活字로 (元)吳澄의 「草廬吳文正公集」 49卷, 外集 3卷, 目錄 1卷, 卷首 1卷을 인쇄하였다. 그 안에는 “羊城梓人陳邦予 黃丘周謹鏞²⁾”이라는 刊記가 있어서 刻手が 누구인지를 알 수 있다.

常熟 錢陸燦의 吹藜閣은 康熙 25(1686)년에 銅活字로 자신이 선집한 「文苑英華律賦選」 4卷을 인쇄하였다. 서명 페이지의 목록 아래와 卷4 끝의 末行에 각각 “吹藜閣同板”이라는 5字가 있다. 또한 錢氏는 自序에서

이에 다소 골라서 받은 활판으로 세상에 행하게 하였다.³⁾

라고 말하고 있다. 版式은 四周單邊에 黑口이며 楷書體로서 현재까지 알려진 바로는 이것이 清代 최초의 銅活字本이다. 版面이 수려하고 아름답우며 인쇄도 분명한 이 銅活字는 아마 蘇南일대⁴⁾ 에서 사용된 듯하다.

福建의 如是山房은 康熙 34(1695)년에 木活字로 「金瓶梅」 34卷, 卷首 1卷을 인쇄하였다. 이는 전질을 3개의 印版으로 印出한 것이다.⁵⁾

康熙年間の 말기에 이르러 淸 황실 조정의 內府는 銅活字를 제작하여 「古今圖書集成」(書影 1) 등 여러 서적을 인쇄하였다. 內府가 제작한 銅活字의 제작연대에 관하여 「淸宮史續編」에는

우리 淸 왕조는 康熙年間に 御纂한 「古今圖書集成」에서부터 銅活字版 방식을 시작하

1) 魏隱儒. 中國古籍印刷史. 北京, 印刷工業出版社, 1984. p. 225.

2) 田淵正雄. 清代木活字版印刷技術考. ビブリア, 제 75호(1980). p. 441.

3) 于是稍簡汰而授之活板, 以行于世.

4) 張秀民. 清代的銅活字. 喬衍瑄 張錦郎 공편. 圖書印刷發展史論文集續編. 臺北, 文史哲出版社, 1979. p. 96.

5) 田淵正雄. 清代木活字版印刷技術考. p. 442.

였으니 작업량은 반으로 줄고 효과는 배로 늘어서 역사에 모범이 되었다.⁶⁾

라고 하고 있고, 영국인 Lionel Giles는 자신이 영문으로 편찬한 「古今圖書集成索引」의 서론에서

雍正황제의 諭旨를 보면 이 책은 康熙황제가 죽을 때에 이미 완성되었음이 나타나는데, 원고가 이미 완성되어 인쇄를 기다리고 있을 뿐만 아니라 활자도 또한 이미 제작되었다.⁷⁾

라고 말하고 있다. 또 혹자는

清朝의 康熙年間に 황제의 명으로 銅活字를 조각하였다.⁸⁾

라고 말하고 있다. 이상과 같이 상술한 여러 학자들은 康熙年間の 말기라고만 언급하고 있고 어느 해라고는 명시하지 않고 있다. 현재까지 알려지고 있는 최초의 內府 銅活字 인본은 康熙 52(1713)년에 印出한 「星曆考原」이다.⁹⁾ 이에 의하면 늦어도 1713년에는 이미 內府에 銅活字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 銅活字의 제작방법이 조각한 것인가 주조한 것인가에 대하여는 서로 다른 기록이 있다. (淸)吳長元の 「宸垣識略」에는

활자판(武英殿의 銅活字)은 줄곧 구리로 주조한 것으로 圖書集成을 인쇄하기 위하여 제작한 것이다.¹⁰⁾

라고 하고 있고, 泉州 龔顯曾의 「亦圓脛牘」에는

- 6) 慶桂等奉勅撰. 清宮史續編. 卷94. 書籍20. 校刊, p. 1上. “我朝自康熙年間, 御纂古今圖書集成, 爰創銅字版式, 事半功倍, 尤堪模範千秋.”
- 7) 萬國鼎. 古今圖書集成考略. 劉家驥編. 中國圖書史資料集. 香港, 龍門書店, 1974. p. 715. “觀雍正上諭, 是書顯已完成於康熙帝歿時, 不但稿已完成待印, 字模亦已製就.”
- 8) 屈萬里. 昌彼得宮. 圖書板本學要略. 臺北, 華岡出版公司, 1978. p. 63. “清康熙間, 勅刻銅活字.”
- 9) 陶澍撰. 故宮殿本書庫中華民國二十二年存目. 卷中, 儀象, p. 1下.
- 10) 吳長元. 宸垣識略. 卷3. 皇城一, p. 24下. “活字板(武英殿銅活字)向係銅鑄, 爲印圖書集成而設.”

康熙年間の 武英殿活字版은 구리를 주조하여 활자를 만들었다.¹¹⁾

라고 하고있다. (淸)包世臣은 또

康熙年間に 內府는 銅活字 백수십만字를 정교하게 주조하여 서적을 絳版 印刷하였
다.¹²⁾

라고 말하고 있다. 이에 반하여 乾隆황제는 오히려

康熙年間に 古今圖書集成을 편찬하여 銅活字를 조각하여 활자판을 만들었다.¹³⁾

라고 말하고 있다. 乾隆황제의 언급이 당연히 신빙성이 높을 것이다. 武英殿의 “銅活字를 조각하는 刻手의 글자당 공임이 銀錢 2푼 5리¹⁴⁾”인데 이는 명조체인 宋體字나 해서체인 軟體字를 조각하는 공임보다 비싸기가 이미 수십 배에 달한다. 금속은 단단하여 목판보다 조각하기가 어려우므로 공임이 몇배 증가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당시 “銅活字를 주조하는 사람”이라고 하지 않고 “銅活字를 조각하는 사람”이라고 한 점으로 미루어 봐도 이 銅活字는 조각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이밖에 일부 학자들도 內府의 銅活字는 조각한 것이지 주조한 것이 아니다¹⁵⁾라고 말하고 있다. 다시금 프랑스 儒連의 주장에 의하면 康熙황제가 유럽 기독교 전도사의 건의를 받아들여 銅活字 약 25만개를 조각하도록 명령하였다고 여기고 있다. 영국의 목록학자 波拉特는 서적에 印出된 같은 문자의 字迹이 현저히 구별되는데 이는 실제적으로 한 組의 주조한 활자에서는 출현이 불가능하다고 지적하고 있다.¹⁶⁾ 이는 이 활자가 틀림없이 조각된

11) 樊顯會, 亦圓腔韻, p. 90, 亦圓子版書, “康熙中武英殿活字版, 範銅爲之.”

12) 張秀民, 中國印刷史, 上海, 上海人民出版社, 1989, p. 716. “康熙中, 內府鑄精銅活字百數十萬, 排印書籍.”

13) 慶桂等奉勅撰, 清宮史續編, 卷94, 書籍20, 校刊, p. 4上. “康熙年刊編纂古今圖書集成, 刻銅字爲活板.”

14) 托津等奉勅撰, 大清會典事例, 卷1199, 內務府, 書籍碑刻, p. 1上-2下. “刻銅字人每字工銀二分五釐.”

15) 1. 屈萬里 昌彼得공저, 圖書版本學要略, p. 63.

2. 史梅岑, 中國印刷發展史, 臺北, 臺灣商務印書館, 1977, p. 131. 저자 는 여기에서 內府의 銅活字는 조각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또 李之鼎이 「叢書學要」에서 “武英殿本은 聚珍版銅活字로 하였는데, 구리를 조각하여 제작한 것이 가장 아름답다(殿本以聚珍銅字, 其圖鑲銅爲之者最佳)”라고 말한 것도 인용하고 있다.

16) 張秀民, 清代的銅活字, p. 95.

것이지 주형을 이용하여 주조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현존하고 있는 「古今圖書集成」의 印本으로부터 그 서체를 자세히 直觀해 보면 畷족한 각이 있어서 鑄造한 활자의 필획이 둥그스러운 점과 다르다. 이상 여러 학자의 견해와 활자본 실물을 통한 고증을 근거할 때 內府의 銅活字는 수작업으로 조각한 것임을 긍정할 수 있다. 상술한 吳長元, 龔顯曾, 包世臣 등의 견해는 자연히 성립될 수 없다. 이 銅活字의 수량에 대하여 儒連은 25만字라고 하고 있고 麥高文은 23만字라고 여기고 있다.¹⁷⁾ 錢存訓도 25만字 전후라고 말하고 있다.¹⁸⁾ 그러나 이들 모두 근거한 바가 무엇인지는 알 수 없다. 다시금 「松鶴山房詩集」과 그 文集의 서체를 보면 宋體字이면서 顏眞卿體에 가깝고 필획이 비교적 草拙한데 비하여, 「古今圖書集成」은 가로획은 가늘고 세로획은 두꺼운 전형적인 方體字이면서 크고 작은 두 종류의 활자체를 사용하였다는 서로 다른 점을 근거할 때 당시 內府의 銅活字는 실제로 한 組만이 아니었음을 알 수 있다. 福州출신의 陳夢雷는 康熙 52년에 北京의 誠親王 胤邸의 邸閣에서 內府의 銅活字를 빌려서 자신의 저술인 「松鶴山房詩集」 9卷과 文集 20卷을 인쇄하였다.¹⁹⁾ 이밖에 內府의 銅活字로 인쇄한 서적으로 천문 수학 음악에 관한 여러 종이 있다. 陶湘이 편찬한 「故宮殿本書庫中華民國二十二年存目」에는 “「數理精蘊」 53卷, 康熙年 銅活字印; 「律呂正義」 5卷, 康熙年 銅活字印; 「星曆考原」 6卷, 康熙 52年 勅纂, 銅活字印”이라고 저록하고 있다. 혹자는 「數理精蘊」은 康熙 52년에 인쇄하였고; 「律呂正義」는 雍正 2(1724)년에 인쇄하였다고 하고 있다. 雍正年間(1723-1735)에 이르러서도 이 활자로 陳夢雷가 편찬한 「古今圖書集成」 10,000卷, 目錄 40卷 등 모두 10,040卷을 인쇄하여, 本書 5,000책과 目錄 20책으로 나누어 장정하고 각각 520函과 2函에 나누어 보관하였다. 그러나 인쇄연대에 대하여 여러 학자들의 견해가 일치하지 않고 있다. 張澹은 古今圖書集成再考²⁰⁾에서 武英殿聚珍版에 수록한 乾隆황제 御製詩의 注에 “康熙年間에 「古今圖書集成」을 편찬하여 銅活字를 조각하여 활자판을 만들어 組版印刷하는 작업을 끝마쳤다.”고 한 말을 근거하여 「古今圖書集成」은 康熙年間에 이미 印出 되

17) 張秀民, 清代的銅活字, p. 95

18) 錢存訓, 中國歷代活字本, 古籍鑑定與維護研習會專集編輯委員會編, 吳哲夫 집행편집, 古籍鑑定與維護研習會專集, 臺北, 中國圖書館學會, 1985, p. 215.

19) 張秀民, 中國印刷史, p. 716.

20) 陶湘編, 故宮殿本書庫中華民國二十二年存目, 卷中, 僞象, p. 1.

21) 張秀民, 中國印刷史, p. 724.

22) 張澹, 古今圖書集成再考, 新中華, 제4卷, 제 4期, “康熙年間編纂古今圖書集成, 刻銅字爲活版, 排印藏工.”

었다고 여기고 있다. 그러나 이 견해는 일찌기 부인된 바 있다.²³⁾ 혹자는 「古今圖書集成」이 雍正 4(1726)년에 組版印刷되었다²⁴⁾고 하고 있고, 또 다른 자는 현재 卷首에 실린 雍正 3(1725)년 12월 蔣廷錫 등의 校刊告成表文과 雍正 4년의 御製序에 근거하여 雍正 3-4년에 완성되었다²⁵⁾고 하고 있다. 그러나 또다른 혹자는 雍正 6(1728)년에 인쇄하였다²⁶⁾고 하고 있고 또 雍正 4년에서 6년사이에 완성되었다²⁷⁾고 하는 자도 있다. 우리는 「古今圖書集成」이 그 권질의 방대함으로 말미암아 일이년에 다 인쇄할 수 없음을 알고 있다. 따라서 혹자는 인쇄를 개시한 해를 기준으로 하고 혹자는 인쇄를 종료한 해를 기준으로 하였을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다. 이상을 종합하면 「古今圖書集成」은 康熙 59년에 諭旨를 받들면서부터 인쇄를 시작하여 雍正 원년에 이미 모두 인쇄를 마쳤는데, 그 후 착오를 교정하고 또 접어서 장정해야 하므로 雍正 3년 12월에 이르러서 蔣廷錫이 비로소 校刊告成表文을 올렸으며 雍正 4년에는 또 御製序文을 덧붙였다고 할 수 있다. 인쇄 부수에 대하여도 견해가 일치하지 않고 있다. 혹자는 60부라고 하고, 혹자는 64부라고 하고 있으며 외국인 중에는 30부 또는 100부라고 하는 자²⁸⁾도 있다. 또한 66부²⁹⁾라고 하는 자도 있다. 그러나 清朝의 「內務府奏請查武英殿修書處餘書請將監造司庫等官員議處摺」의 언급에 의하면 마땅히 64부에 전본 1부가 추가되어야 한다.³⁰⁾ 이는 각각 黃紙와 開化紙에 인쇄한 두가지 印本으로 구별된다.³¹⁾ 「議處摺」은 정산한 이후를 책임지는 보고서로서 물자조달과 보관을 책임지는 문제에 관련되므로 정확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 서적의 본문은 大字를 사용하였는데 대략 1cm의 方形이고 주석은 小字를 사용하였는데 대략 大字의 절반정도이다. 行字수는 半葉에 9行 20字이다. 이 활자는 비록 일일이 조각한 것이지만 동일한 문자의 字樣이 거의 일치하고 활자의 크기도 모두 같다. 문자의 行과 列이 가지런하고 문자마다 단정하고 기울어지지

23) 胡道靜. 古今圖書集成情況 特點及其作用. 王秋桂 王國良공역. 中國圖書 文獻學論集. 臺北, 明文書局, 1983. p. 470. 및 p. 481, 註 15.

24) 저자미상. 中國古典文獻學. 臺北, 木鐸出版社, 1983. p. 52.

25) 1. 張秀民. 清代的銅活字. p. 94.

2. 錢存訓. 中國歷代活字本. p. 215.

26) 胡道靜. 古今圖書集成的情況 特點及其作用. p. 464.

27) 劉國鈞. 宋元明清的刻書事業. 學海出版社編輯部편. 中國圖書板本學論文選集. 臺北, 學海出版社, 1981. p. 389.

28) 張秀民. 清代的銅活字. p. 94.

29) 1. 秀川. 中國印刷術史話. 香港, 商務印書館, 1977. p. 41.

2. 錢存訓. 中國歷代活字本. p. 215.

30) 胡道靜. 古今圖書集成的情況 特點及其作用. p. 480, 註 12.

31) 張秀民. 中國印刷史. p. 718.

않도록 배열되어 있다. 사용한 인판은 광곽이 四周雙邊으로 고착식이며, 모서리는 견고하게 밀착되어 있다. 판면의 墨色도 대단히 균일하다. 이로 미루어 볼 때 이의 조각 기법과 組版印出의 기술이 대단히 고명함을 알 수 있다. 뿐만아니라 銅活字에 사용하는 墨汁도 이미 문제가 되지 않아서 정부가 주도하는 활자인쇄기술이 개인과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원래 內府가 소유하고 있던 銅活字인데 「古今圖書集成」의 인쇄가 끝나고 보급되기 시작한 이후 다른 서적을 더 인쇄한 적이 없다. 즉, 이 대량의 銅活字를 武英殿의 銅活字 창고에 저장해 두고 庫掌 1명과 拜唐阿 2명의 관원을 배치하여 전문적으로 관리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그 후 관리자에 의하여 부단히 절도되고 말았다. 관리자는 이 사실이 발각되어 처벌받을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北京 수도의 金貨가 비싼 때를 틈타 이 銅活字를 녹여 동전을 주조할 것을 건의 하였다. 그리하여 乾隆 9(1744)년에 銅活字 창고에 남아있던 銅活字 銅쟁반 등은 전부 동전으로 주조되는 운명을 맞게된 것이다.³²⁾ 이상 서술한 바에서 중국은 정부기관이 주동적으로 금속 활자를 제작하여 서적을 인쇄한 것은 18세기에 이르러 비로소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山東 泰安 徐志定の 眞合齋는 康熙 57(1718)년 겨울에 磁活字를 창제하여 이듬해 봄에 張爾岐의 「周易說略」 4卷과 「蒿庵閑話」 2卷을 차례로 인쇄하였다. 「周易說略」에 수록된 徐志定の 서문에 의하면 「周易說略」은 徐志定이 창제한 磁活字로 인쇄한 최초의 서적이며 磁活字版 「周易說略」은 또 이 저술의 첫번째 판본이다. 徐志定은 재삼 “磁刊” 또는 “磁版”이라고 언급하고 있고, 또 초벌 도기에 유약을 입힌 이후 비로소 자기라고 하는 점으로 미루어 徐志定이 활자를 구워낼 때 유약을 입혔음을 알 수 있다. 이때문에 “磁版”이라고 지칭하고, “泥版”이나 “陶版”이라고 칭하지 않고 있다. 磁活字의 硬度에 대하여는 서문에서 “우연히 磁版을 창제하였는데 나무보다 더 견고하다(偶創磁刊, 堅致勝木)”고 언급한 점에서 목질보다 단단함을 알 수 있다. 이 泰山의 磁活字版은 활자배열이 비교적 가지런하고 墨色도 고른 편이어서 安徽 涇縣 翟金生の 일가가 道光 24(1844)년부터 咸豐 7(1857)년까지 泥活字로 인쇄한 각종 판본과 비교하면 상당히 정교하다. 혹자는 「周易說略」과 「蒿庵閑話」가 모두 “泰山磁版” 또는 “磁刊”이라고만 표시하고, 활자라고 설명하지 않았고 또한 排字나 排印 등의 字樣도 없으며 아울러 그의 판식을 고찰해 보면 「周易說略」의 卷1 제 33, 34, 48葉과 卷7 제 10葉 및

32) 托津等奉勅撰, 大清會典事例, 卷1199, 內務府, 書籍碑刻, p. 1下.

「蒿庵閑話」의 卷1 제 22, 23葉 등에서 균열이 간 곳을 발견할 수 있는 점 등으로 인하여 이는 磁版이지 磁活字로 組版印刷한 것이 아니라고 여기고 있다. 그러나 활자본에서도 이렇게 균열이 간 현상을 발견할 수 있다. 즉 乾隆 말년의 木活字본인 「京畿金石考」(후술 참조)는 卷上 14葉의 “趙孟頫撰” 4字가 모두 균열이 가서 벌어져 있다. 특히 “趙”字는 거의 “走肖” 2字로 나누어져 있을 정도이고 나머지 3字도 상당히 멀리 균열되어 있다. 또 (淸)會稽 金埴의 「巾箱說」에

康熙 56-57년 사이에 泰安州에 한 선비가 있었는데 그 이름은 잊었으나 점토를 이겨서 글자를 만들어 활자판으로 할 수 있었다.³³⁾

라고 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泰安의 선비는 곧 徐志定을 지칭한다. 이밖에도 이유를 들면서 활자판임을 주장하고 있는 이가 있다. 즉 「周易說略」 卷6 끝의 濟卦에 “上九象曰飲酒濡首，不知節也。”³⁴⁾라고 되어 있는데 두 개의 “不”字가 있어서 의미가 통하지 않는다. 이는 당연히 조판공이 “亦不知節也”의 “亦”字를 “不”字로 잘못 배열하여 “不”字를 하나 더 배열한 결과 “不知節也”가 된 것으로 보아야 마땅하다. 또 行間이 기울어져서 곧지 못한 곳이 많으니 「蒿庵閑話」의 卷1 45葉에서 48葉까지는 行線이 거의 활처럼 굽었으며 글자배열도 빼돌려져 있다. 字體의 크기도 고르지 못해서 어는 것은 지나치게 큰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또 「周易說略」과 「蒿庵閑話」 두 서적을 대조해 보면 같은 글자의 크기가 같고 서체도 일치하여 실오라기만큼도 어긋나지 않으며, 墨色の 濃淡은 고르지 못한데 간혹 한 면의 같은 行 안에 연달아 있는 문자가 着墨된 濃淡의 정도가 대단히 비슷하다. 그리고 徐志定의 서문에 겨울에 “磁刊”을 창제하여 봄에 이미 서적이 완성되었다고 하였는데 만약에 활자가 아닌 磁版이라면 어떻게 그만큼 신속하게 할 수 있었겠는가.³⁵⁾ 따라서 이는 磁版이 아니고 活字版인 것이다. 이밖에 磁版 서적에 관한 기록으로 (淸)王士禛의 「池北偶談」을 들 수 있다. 이의 叢易經條에

33) 張秀民. 中國印刷史. p. 695. “康熙五十六七年間，泰安州有士人忘其姓名，能鐵泥成字爲活字板。”

34) 張秀民. 中國印刷史. p. 697.

35) 1. 朱家濂. 清代泰山徐氏的磁活字印本. 學海出版社編輯部. 中國圖書板本學論文選集. p. 441-445.

2. 張秀民. 清代涇縣翟氏的泥活字印本. 學海出版社編輯部. 中國圖書板本學論文選集. p. 449.

3. 魏隱儒. 中國古籍印刷史. p. 243-244.

益都의 翟某라는 진사가 饒州府의 관리로 추대되었는데 대단히 횡포가 심하였다. 하루는 가마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을 모아서 靑劄 「易經」 1部를 만들도록 하였다. 그 법식이 西安의 石刻 「十三經」처럼 정교하였다. 대체로 여러번 바꾼 끝에 완성되었다. 蒲城 王孝齋의 緝官 益都令이 일찌기 이를 보았다.³⁶⁾

라는 기록이 있다. 그러나 이 청자 「易經」은 아마도 문자를 磁版 위에 써서 유약을 입힌 후 불에 구워서 만든 것³⁷⁾이지 磁活字로 組版印刷한 것은 아닌 듯하다.

康熙年間에 北京에서 출판된 「摺紳錄」은 木活字로 계절에 따라서 출판한 것이다. 이는 紅皮歷書라고도 하고 紅面書라고도 하는데 清代의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職官錄이다. 또 「京報」가 있는데 黑面이라고도 하는 이것은 木活字로 인쇄하였다.³⁸⁾ 이밖에 도 木活字로 組版印刷한 (淸)施琅의 「靖海記」 1권이 있다.³⁹⁾

4. 雍正年間(1723-1735)

歸安 汪亮采의 南陔草堂은 雍正 3년에 木活字로 (宋)唐庚의 「唐眉山詩集」(書影 2)을 인쇄하였는데 책 끝에 “湖城潘大有刊⁴⁰⁾”이라는 刊記가 있어서 인쇄공이 누구인지를 알 수 있다. 이의 인쇄기술은 사용한 활자의 서체는 해정한 명조체로 아름답고 크기도 모두 같으며 같은 字樣의 필획이 매우 비슷하다. 印版은 조립식을 사용하였는데 네 모서리가 견고하게 밀착되어 있고 문자의 行과 列이 가지런하고 기울어지지 배열된 문자도 없으며 墨色도 균일하다. 이로 미루어 刀刻術 組版技術 및 먹물조제技術이 대단히 고명하여 木板과 어깨를 겨룰 수 있을 만큼 아름답다.

雍正 3년에 木活字로 陳唐이 重訂한 (宋)陳師道の 「後山居士詩集」 6卷, 正集목록 1卷과 「後山先生逸詩」5卷, 逸詩목록 1卷, 詩餘 1卷을 인쇄하였다. 책 중의 卷2 제 3葉 제 3行부터 시작되는 “次韻蘇公兩湖徒魚三首”의 끝 수인 “瓶懸堂間終一碎”의 “碎”字

36) 王士禛. 池北偶談. 卷23, 談異7之4, 亞易經條. “益都翟進士某, 爲饒州府推官, 甚暴橫. 一日, 集窰戶, 造靑劄易經一部, 楷法精妙, 如西安石刻十三經式, 凡數易, 然後成. 蒲城王孝齋緝官益道令, 曾見之.”

37) 張秀民. 中國印刷史. p. 697.

38) 張秀民. 中國印刷史. p. 708.

39) 魏隱儒. 中國古籍印刷史. p. 225.

40) 張秀民. 清代的木活字. 張衍瓘 張錦郎 鄧. 圖書印刷發展史論文集續編. 臺北, 文史哲出版社, 1979. p. 116.

와 卷6 제 9葉上 말행의 끝자인 “天”字는 두 자 모두 옆으로 조판되어 있다. 그러나 같은 활자로 인쇄한 다른 판본과 대비해 보면 이 두 자 모두 올바르게 교정되어 있다. 이로 미루어 전자는 初刷本이고 후자는 교정한 후에 다시 인쇄한 校訂本임을 알 수 있다. 문자는 軟體字를 사용하였고 組版상태는 가지런하고 고르며 기울어지거나 빼뜯어진 감이 없다.⁴¹⁾

5. 乾隆年間(1736-1795)

乾隆황제가 「四庫全書」를 찬수할 때 「四庫全書」 중의 「永樂大典」으로부터 수집한 모든 희귀한 逸書를 간행하여 유통시키고자 하였다. 그러나 武英殿 銅活字庫에 보관하던 銅活字는 이미 유실되거나 녹여서 동전을 만들어 버렸고, 이번에 인쇄할려는 서적은 종류가 많아서 木板으로 하기에 용이하지 않았다. 또 金簡이 木活字를 제작하여 組版印출할 것을 건의하였다. 그리하여 乾隆 38(1773)년 10월 28일에 乾隆황제가 재가한 이후부터 乾隆 39(1774)년 4월 26일까지 약 6개월동안 크고 작은 두 종류의 대추나무 활자를 모두 253,500개나 조각하였다.⁴²⁾ 武英殿聚珍版의 印出경험과 그 과정, 즉 木子제작에서부터 刻字 字櫃 槽板 夾條 頂木 中心木 類盤 套格 擺書塾板 校對印刷 歸類 및 逐日輪轉辨法에 이르기까지 그 자세한 내용은 金簡 자신이 관리감독하는 聚珍版으로 인쇄한 자신의 저술인 「武英殿聚珍版程式」(書影 3)에 잘 수록되어 있으므로 여기에서는 다시 수록하지 않는다. 武英殿에서 木活字로 인쇄한 서적은 乾隆 39년 4월 26일 활자를 다 조각한 이후부터 39년 10월까지 4종을 인쇄하였고 39년 12월에 또 1종을 인쇄하였다. 印出한 모든 서적은 계속 황제에게 올려졌는데 3년동안에 약 30여 종⁴³⁾의 서적을 組版하여 인쇄하였다. 乾隆 59(1794)년까지 「武英殿聚珍版叢書」138종 2,300여권을 인쇄하였다. 그러나 이 138종 안에는 乾隆 38년 4월 聚珍版으로 인쇄하기 전에 木板으로 인쇄한 4종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므로 木活字版은 당연히 乾隆 38년 10월부터 59년까지 인쇄한 134종이다. 版式은 모두 같은데 半葉에 9行 21字이며 매 首

41) 魏隱儒, 中國古籍印刷史, p. 225-226.

42) 金簡, 武英殿聚珍版程式, 奏議, 乾隆三十八年十月二十八日條.

43) 金簡, 武英殿聚珍版程式, 紀昀等總纂, 景印文淵閣四庫全書, 臺北, 商務印書館, 1983, 제 673冊.

44) 金簡, 武英殿聚珍版程式, 奏議, 乾隆三十九年十二月二十六日條 및 四十一年十二月二十二日條.

葉 3행 아래에 “武英殿聚珍版” 6字가 있다. 嘉慶年間(1796-1820)에 또 계속하여 「周煌」 「續琉球國志略」 「乾隆八旬萬壽盛典」 「吏部則例」 등 8종을 단행본으로 印出하였는데 이 단행본의 版式은 半葉에 7, 8, 9, 11行 등이고 매 行에 20, 21, 25字⁴⁵⁾ 등으로 각각 다르다. 그 내용은 극소수의 고대 또는 金 元代의 저작⁴⁶⁾ 이외에 宋代에 경전을 해석한 저작과 宋代인물의 別集이 대부분이다. 또한 「東觀漢紀」 「兩漢會要」 「唐會要」 「五代會要」 「水經注」 「元和郡縣志」 「輿地廣記」 「農書」(書影 4) 「醫方」 「古算經」 등⁴⁷⁾ 輿地志와 과학기술 분야의 저술이 있다. 「武英殿聚珍版叢書」는 저술마다 連四紙(連史紙)와 竹紙로 인쇄하였는데 전자로는 약 5부 내지는 20부정도 인쇄하여 궁중 안에 진열하는 데 제공하고 후자로는 약 300부 정도 인쇄하여 대부분은 정가대로 보급하여 유통시키고 간혹은 진열하기도 하였다.⁴⁸⁾ 이의 活字印刷技術에 대하여 (朝鮮)李圭景의 「五洲衍文長箋散稿」에

中原의 활자는 武英殿聚珍字가 가장 우수한데 활자의 背面이 오목하지 않고 평평하며 구멍을 뚫어서 꿰었다. 그러므로 字行 사이에 틀을 세워 한줄에서 나온 것 같아서 거의 옆으로 배열되거나 기울어지지 않았다. 韓國의 활자판 방식은 크기도 하고 작기도 하며 혹은 두텁기도 하고 얇기도 하고 또 활자의 背面이 오목한데다 구멍을 뚫지도 않고 꿰지도 않았으므로 字行이 어긋났다.⁴⁹⁾

라고 한 점으로 미루어 武英殿聚珍版의 活字印刷技術이 당시 朝鮮보다 좋았음을 알 수 있다. 武英殿聚珍版은 먼저 邊欄과 界線을 인쇄하고 다시 문자를 인쇄해 넣었다. 이때문에 간혹 문자가 界線과 겹쳐서 인쇄되어 있는 현상을 볼 수 있다. 예를 들면 乾隆 47년에 인쇄한 「意林」 卷1, 제 1葉上의 제 3行과 「山谷內集詩註」 卷1, 제 1葉上의 제 5行 등이다. 또한 「絜齋毛詩經筵講義」(書影 4) 卷3, 제 6葉下의 제 8·9行 제 21字와 「儀禮識誤」(書影 6) 卷2, 제 16葉下의 末行 제 2字부터 제 5字까지에서도 같은 현

45) 1. 陶湘. 武英殿聚珍版叢書目錄. 圖書館學季刊. 제 3卷 제 1·2合期. 1929. 6. p. 205-17.

2. 魏隱樞. 中國古籍印刷史. p. 228.

46) 張秀民. 中國印刷史. p. 703.

47) 張秀民. 清代的木活字. p. 109.

48) 金簡. 武英殿聚珍版程式. 奏議. 乾隆三十九年四月二十六日條 및 三十九年十二月二十六日條.

49) 李圭景. 五洲衍文長箋散稿. 卷24. 鑄字印書辨證說. “中原活字, 以武英殿聚珍字爲最, 字背不凹而平, 鑽孔貫串, 故字行間架, 如出一線, 少不橫斜矣. 我國(韓國)字式, 則或大或小, 或厚或薄, 又凹字底, 不鑽不貫, 故字行亂錯.”

상을 발견할 수 있다. 이에서 武英殿聚珍版의 組版技術은 內府의 銅活字만큼 정교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武英殿의 木活字는 먼저 四面과 높이가 모두 같도록 木子를 대패질하여 만든 후에 문자를 새겼다. 그러므로 組版된 印面의 높이는 균등한데 그 墨色은 印出상태가 분명하지 않은 곳이 있다. 아마도 먹물로 쇄출할 때 소홀히 한 결과일텐데, 이에서 刷出技術이 활자인쇄 과정 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 수 있다. 또한 당시의 편집과 검열을 담당한 여러 文臣들이 업무를 마치는데 급급한 나머지 각 韻에 산견하는 고서를 다 수집하지 못하여 통용되던 刻本과의 차이점을 교감하지 못하였다. 심지어 통용본은 전질이 아니고 「永樂大典」중에서 전질이 있는데도 이또한 검열을 소홀히하여 그 逸文을 보충하지 못하였다.⁵⁰⁾ 이 武英殿聚珍版은 (元)王禎의 방법⁵¹⁾에 기초하여 개량 발전한 것이다. 즉 活字製作의 절차 邊欄과 界線의 인쇄방법 組版방법 등이 그러하고 또 중요한 의미를 지닌 활자보관용 字櫃도 轉輪排字架를 개량한 것이다. 이제 이 양자를 비교하면 다음 표와 같다. 이 진귀한 木活字는 그후 武英殿에 오래도록 보관하기만 하고 충분히 이용하지 못하다가 드디어 당직 위병들에 의하여 불소시개로 사용되어⁵²⁾ 內府의 銅活字와 같은 운명을 맞았다.

安徽省 婺源에 위치한 紫陽書院은 乾隆 55(1790)년에 木活字로 山長 周鴻의 「婺源山水游記」(書影 7)를 인쇄하였다.⁵³⁾

이 활자의 서체는 匠體字로 필획이 아름답고 활자의 크기도 모두 같아서 문자의 행과 列이 가지런하며 빠들어진 문자도 없다. 비록 界線이 간혹 분명하지 않게 인쇄되었고 네 모서리도 약간 틈이 벌어져 있으나 그러나 墨色은 균일하여 印面의 높낮이가 고르다는 것을 짐작하게 한다. 이상으로부터 刻字技術 組版技術 먹물조제技術이 상당히 고명하여 木板本과 함께 그 아름다움을 견줄만 하다.

程偉元의 萃文書屋은 乾隆 56(1791)년과 57(1792)년에 두 차례에 걸쳐 木活字로 「紅樓夢」(書影 8·9) 120회를 인쇄하였다.⁵⁴⁾ 이 활자의 서체는 匠體字로 활자의 크기는 모두 같은데 같은 문자의 字樣은 그다지 일치하지 않고 있다. 문자의 행과 列은 비교적 가지런하다. 광곽의 네 모서리는 크게 떨어져있으며 많은 부분의 界線이 印出되지 않았고 墨色도 또한 그다지 균일하지 못하여 분명하게 찍히지 않은 문자도 있으니 印面의 높낮이가 고르지 못한 결과의 소치일 것이다. 이로 미루어 刻字技術과 組版技術이 그다지 고명하지 못함을 알 수 있다. 乾隆 57년에 印出한 程乙本의 引言에

친구 중에 빌려서 베껴 불러고 하는 자가 매우 많았는데 베끼기는 진실로 곤란하고

〈표〉 王禎과 武英殿聚珍版的 印刷技術

	農禎	武英殿聚珍版
활자제작방법	먼저 木板 한 장에 문자를 가득히 조각하고 가는 톱으로 권 후 수정하였다.	먼저 각각의 木子를 만들고 字樣을 木子 위에 붙여서 문자를 조각하였다.
광곽·界線과 문자의 인쇄방법	竹片을 깎아서 界線을 대었다.	배나무 木板에 서적을 版式대로 邊欄과 界線을 조각하여 匡廓·界線·版心을 인쇄한 후 그 안에 문자를 인쇄해 넣었다. 따라서 匡廓의 네 모서리가 틈없이 붙어 있어서 활자본의 모서리에 큰 틈이 있는 것과 다르다. 그러나 界線과 문자가 겹치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조판방법	組版할 때 여러가지 작은 竹片으로 印版을 견고하게 하였다.	組版할 때 종이조각으로 印版을 견고하게 하였다.
활자 보관용기	轉輪排字盤을 발명하여 監韻에 따라 字母를 분류하고 큰 글씨로 표시한다. 활자를 뽑을 때 좌우에 각각 轉輪盤을 하나씩 두고 돌리면서 필요한 활자를 선택(文選)하였다.	字櫃를 사용하였다. 康熙字典을 따라서 우선 12支名으로 나누어 12개의 큰 字櫃를 배열하고 각각의 木櫃에는 서랍을 200개씩 만들었다. 서랍마다 크고 작은 8칸으로 나누어 4종의 활자를 大字와 小字로 구분하여 보관하였다. 각각의 서랍 앞면에는 部와 字 및 필획 수를 표시하였다. 활자를 선택(文選)할 때 사람이 이동해야 하지만 대량의 서적인쇄에 적합하다.

50) 葉德輝. 書林清話. 臺北, 世界書局, 1974. 卷9, 武英殿聚珍版之遺漏, p. 241.
 51) 王禎. 農書, 卷 22, 造活字印書法.
 52) 張秀民. 清代的木活字. p. 106.
 53) 1. 張秀民. 清代的木活字. p. 107.
 2. 北京圖書館原編. 勝村哲也覆刊編. 中國版刻圖錄. 京都, 朋友書店, 1983. p. 102.
 54) 魏隱儒. 中國古籍印刷史. p. 228-230.

木板으로 간행하기에는 시일이 필요하여 짧은 시간에 활자를 모아서 인쇄하였다. 급하게 여러 동호인에게 공개하고자 하였기 때문에 첫번째 인쇄할 때는 자세히 교정하지 못하여 간혹 오류가 있었다. 이제 다시금 각각의 원본을 모아서 자세히 교열하여 오류가 없도록 개정하였다.⁵⁵⁾

라고 말하고 있다. 이로부터 공기를 재촉하는 것이 인쇄기술과 교감작업에 얼마만큼 막대한 영향이 있는가를 알 수 있다.

孫星衍의 問字堂은 乾隆年間에 木活字로 자신이 저술한 「京畿金石考」(書影 10) 2권을 인쇄하였다.⁵⁶⁾ 半葉에 10行 24字를 배열하였고 花口⁵⁷⁾이며 黑單魚尾이다. 종이는 竹紙이나 楮가 약간 포함되어 있다. 이의 서체는 匠體字인데 刀刻術은 그다지 고명하지 못하다. 또 활자를 기울어지게 심어서 빠들어진 문자가 많으며 반만 보이거나 한쪽 부분이 찍히지 않은 문자가 많다. 광곽의 네 모서리에 틈도 크게 벌어져 있다. 版面에 나타난 墨色の 濃淡도 차이가 클 뿐만아니라 먹물이 번지기도 하였고 농도가 진한 葉과 연한 葉이 섞여있다. 이로 미루어 組版技術과 먹물조제技術 역시 고명하지 못함을 알 수 있다.

濟南의 周永年은 乾隆年間에 활자로 「儒藏」을 인쇄할 것을 제창하였다. 중국의 學宮書院 및 명산의 고찰 등 무릇 「儒藏」이 있는 곳은 모두 활자를 한 組씩 갖추어 두고서 필요한 서적을 인쇄하였었다. 그런데 周永年은 활자판으로 서적을 대량으로 생산하여 유통시키려고 하였으니,⁵⁸⁾ 이는 대규모로 유교경전을 인쇄하기 위하여 활자를 채택하도록 주창한 최초의 인물이다.

55) 紅樓夢. 程偉元萃文書屋乾隆57年木活字本(程乙本). 引言. “緣友人借抄爭觀者甚夥, 抄錄固難, 刊板亦需時日, 姑集活字印刷, 因急欲公諸 同好, 故初印時不及細校, 間有紕繆, 今復聚集各原本, 詳加校閱, 改訂無訛.”

56) 中國科學院圖書館編. 中國科學院圖書館藏中文古籍善本書目. 北京, 科學出版社, 1994. p. 191. 史部, 金石類, 總類(史851. 002).

57) 北京圖書館編. 北京圖書館古籍善本書目. 北京, 書目文獻出版社, (1987). p. 1084. 史部, 金石類, 總類(02644)에는 白口라고 잘못 해설하고 있다.

58) 張秀民. 中國印刷史. p. 702.

6. 嘉慶年間(1796-1820)

周秉鑑의 易安書屋은 嘉慶 10(1805)년에 木活字로 「甫里逸詩」(書影 11) 2卷 100부와 「假年錄」 4卷(卷3에 「甫里遺文」이라고 표시) 및 「甫里聞見集」 1卷을 인쇄하였다.⁵⁹⁾ 이 활자의 서체는 아름다우며 문자의 行과 列도 가지런하며 기울어지거나 뺄어진 문자도 없다. 그러나 墨色이 고르지 못하여 간혹 검은 먹덩어리로 찍힌 문자가 있다. 이로써 刻字技術과 組版技術은 비교적 좋으나 먹물조제技術을 비교적 뒤떨어짐을 알 수 있다.

吳門의 汪昌序는 嘉慶 11(1806)년에 木活字로 「太平御覽」(書影 12) 1,000卷을 인쇄하였다.⁶⁰⁾ 서체는 匠體字로 竹紙에 인쇄한 이 활자는 刀刻技術이 대단히 정교하다. 예를들면 「山」字는 木活字임에도 字樣이 완전히 일치하여 거의 한 鑄範에서 주조한 활자로 오인하기 쉬울 정도이다. 組版技術에 대하여는 간혹 활자가 반듯하지 않게 심어져서 문자가 반 밖에 印出되지 않은 경우도 있지만 대체로 行과 列이 가지런하고 광곽의 모서리에 틈도 없어서 그 기술은 상당한 수준이다. 먹물조제와 刷出技術은 간혹 墨色이 지나치게 연하거나 지나치게 진하여 번진 葉이 있는 것으로 미루어 고명하지 못하다. 대체로 「太平御覽」의 권질이 방대한 점과 다른 활자의 인쇄기술 수준을 비교하면 우수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교감에 대해서는 장담점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 卷203의 끝에 「吳興 沈宸 分校·吳興 陳杰 分校·江都 吳澤普 分校」의 3行이 있어서 교감자를 알 수 있지만 이들은 본문 교열에는 충실하였으나 각 卷의 첫 行에 오는 卷首題와 卷數 그리고 版心 및 卷末題 등에는 오류가 적지않다. 예를들면 卷第 16, 9葉의 版心에는 “卷四十六”으로 되어있어서 “四”字가 불필요하게 더 들어가 있다. 卷第 22, 4葉과 5葉은 張次가 “3”과 “4”로 잘못되어 있다. 卷第 39, 5葉의 版心에는 “卷三十八”로 잘못 식자되어 있다. 卷第 118, 6葉의 版心에는 “卷一百十”으로 되어있어 “八”字가 누락되었다. 卷第 217은 2葉에서 5葉까지의 版心에 모두 “卷二百一十八”로 잘못되어 있을 뿐만아니라 5葉은 張次까지 누락되어 있다. 卷第 444의 卷首題 아래의 卷數가 “太平御覽卷第四百四十五”로, 版心에도 1葉과 2葉에는 “卷四百四十五”로 잘못되어

59) 1. 張秀民. 中國印刷史. p. 707.

2. 魏隱儒. 中國古籍印刷史. p. 231.

60) 葉德輝. 書林清話. 卷8, 宋以來活字板, p. 204.

있다. 卷470, 5葉의 版心에는 “卷九百九十五”로 잘못되어 있다. 卷556의 卷首題와 卷末題는 “太平御覽卷第五百五十五”로, 版心の 卷數도 1葉에서 9葉까지 “卷五百五十五”로 잘못되어 있다. 卷728, 4葉과 卷867, 1葉은 版心の 卷數가 각각 “卷八百八十四”와 “卷八百六十三”으로 잘못되어 있는 등이다.

泉州 龔顯曾의 「亦圓勝牘」 卷1에

臺灣鎮의 武隆阿가 銅活字를 조각하여 가지고 있었는데 일찌기 그 「聖諭廣訓注」인본을 보니 자획이 정교하였다.⁶¹⁾

라는 기록이 있다. 安徽의 姚瑩은 道光年間(1821-1850)에 臺灣에서 관직에 있을 때 친구에게 써보낸 편지에서

요즘은 武某라는 군인이 또 聚珍銅版을 주조하였다. 문자는 宋體字이고 매 版(葉)에 8行밖에 없었는데, 내 마음에는 들지 않았다. ……또 福建의 林某는 聚珍木活字版을 만 들었는데……武某의 刻本보다는 비교적 좋았다.⁶²⁾

라고 말하고 있다. 滿洲 正黃族인 武隆阿瓜爾佳는 嘉慶 12(1807)년에 臺灣鎮의 掛印總兵官을 역임하다가 25(1820)년에 滿洲로 귀임하였다.⁶³⁾ 이상에서 武隆阿瓜爾佳가 臺灣에서 總兵官의 임기 중에 銅活字로 「聖諭廣訓」을 인쇄한 사실을 알 수 있다. 그가 사용한 활자에 대하여 龔顯曾은 조각하였다고 하고 姚瑩은 주조하였다고 하고 있는데 비록 주조하였다는 설에 동의하는 자⁶⁴⁾가 있기는 하나 이 양자의 견해가 서로 모순되어 누가 옳은 지는 알 수 없다. 그러나 그의 자획은 정교하여 인쇄술적으로는 상당히 성공한 것이다. 따라서 福建人 林某가 제작한 木活字印刷도 또한 상당한 수준이었음을 알 수 있다. 다만 누구인가를 考究할 수 없음이 아쉽다. 이는 臺灣에도 19세기 초엽에 대륙의 인쇄기술을 모방하여 銅活字와 木活字를 제작하여 서적을 인쇄하였음을

61) 龔顯曾, 亦圓勝牘, 卷1. “臺灣鎮武隆阿刻有銅活字, 嘗見其聖諭廣訓注印本, 字畫精致.”

62) 沈文俾, 清代學者的書簡, 文物, 1961년 10기. “此間有武軍家, 亦鑄聚珍銅板, 字亦宋體, 而每板只八行, 不愜鄙意, ……又有閩人林某作聚珍木板……較善於武刻.”

63) 光緒臺灣通志, 稿本, 史籍, 卷368, 列傳155, 武隆阿傳에는 “嘉慶 11(1806)년에……臺灣鎮總兵을 받았다 (嘉慶十一年……授臺灣鎮總兵).”라고 되어 있다.

64) 저자미상, 中國科學文明史, 臺北, 木鐸出版社, 1983, p. 423.

말해주고 있다.

四川 成都 龍萬育의 敷文閣은 자신이 제작한 木活字 聚珍版으로 嘉慶 14(1809)년에 (清)顧炎武의 「天下郡國利病書」 120卷을 인쇄하여 1년 후에 120부를 완성하였다. 道光 10(1830)년에 재고를 정리하다가 전에 인쇄한 것이 일찌기 품질되었기 때문에 또 한번 더 인쇄하였다. 封面에 타원형의 “敷文閣聚珍板”이라는 印記가 있다. 嘉慶 16(1811)년에 地理學者인 (清)顧祖禹의 「讀史方輿紀要」 130卷을 甘肅에서 인쇄하였다. 매 葉의 版心에 “敷文閣” 3字가 인쇄되어 있다.⁶⁵⁾ 道光 3(1822)년에는 「形勢紀要」 9卷을 인쇄하였다.⁶⁶⁾ 敷文閣의 인쇄기술에 대하여 (清)包世臣은 “木板本만큼 좋지 못하다.(不及全板之善)”고 말하고 있다. 이 활자판은 후에 四川 남방의 桐華書屋 주인 薛氏에게로 넘어갔는데 필획이 탈락되고 마모된 활자가 많아서 薛氏가 다시 보수하였다.⁶⁷⁾

瓊川の 吳志忠은 嘉慶 16년에 木活字로 (五代)邱光庭의 「兼明書」 5卷·(元)迺賢의 「河朔訪古記」 2卷 및 「洛陽伽藍記」 5卷을 인쇄하였다.⁶⁸⁾

朱麟書의 白鹿山房은 嘉慶 17(1812)년에 木活字로 「中吳紀聞」 6卷과 高似孫의 「緯略」 12卷을 인쇄하였다.⁶⁹⁾ 「緯略」의 서체를 보면 匠體字이면서 비교적 아름다우며 문자의 行과 列이 가지런하고 기울어진 문자도 없다. 광곽의 네 모서리는 틈이 크게 벌어져있으나 墨色은 비교적 고른 편이어서 刀刻術과 組版技術이 고명함을 알 수 있다. 印出 후의 교감작업도 신중하여서 잘못 배열된 문자가 있으면 붉은색 사각형으로 덮어 찍어서 지운 다음 그 옆에 정확한 문자를 찍어 넣었다.

嘉慶 17년에 木活字로 「於潛縣志」 16卷을 인쇄하였다. 이 저술의 卷 11, 제 45葉下의 末行에 “之”字가 있는데,⁷⁰⁾ 이는 원래 앞 葉에서 식자한 것을 45葉을 인쇄할 때 미처 다 해판하지 못하고 남아있던 것이 印出된 경우이다.

吳淑驥의 企瑤山館은 嘉慶 21(1816)년에 木活字로 (明)黃端伯의 「瑤光閣集」을 인쇄하였다.⁷¹⁾

65) 張秀民. 清代的木活字. p. 108. 또한 葉德輝. 書林清話. p. 204에는 「讀史方輿紀要」가 道光3(1823)년에 인쇄된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66) 葉德輝. 書林清話. 卷8. 宋以來活字板. p. 204.

67) 張秀民. 清代的木活字. p. 108.

68) 葉德輝. 書林清話. 卷8. 宋以來活字板. p. 204.

69) 葉德輝. 書林清話. 卷8. 宋以來活字板. p. 204.

70) 田淵正雄. 清代木活字版印刷技術考. p. 437-438.

71) 魏隱儒. 中國古籍印刷史. p. 232.

常熟 張金吾의 愛日精廬는 嘉慶 24(1819)년⁷²⁾에 10만여개의 木活字를 얻어서 嘉慶年間에 자신이 저술한 「愛日精廬藏書志」 4권을 인쇄하였다. 또 嘉慶 24년 여름에는 (宋) 李燾의 「續資治通鑑長編」(書影 13) 520권을 16개월에 걸쳐서 120부를 인쇄하였다. 목록의 앞에 두 行으로 “嘉慶己卯仲夏海虞張氏愛日精廬印行”이라는 刊記가 있다.⁷³⁾ 이 활자의 서체는 匠體字이고 아름답다. 간혹 약간 長形이거나 약간 扁形인 문자가 있는 것으로 보아서 아마도 먼저 네모반듯한 木子를 만든 후에 문자를 조각하였을 것이다. 광곽의 네 모서리는 틈이 크게 벌어져 있으나 문자의 가로와 세로줄은 가지런하고 삐뚤어지거나 기울어진 문자도 없다. 界線은 사용하지 않았으며 版心의 아래에 “愛日精廬” 4자가 있다. 墨色은 그다지 균일하지 못한데 小字가 大字보다 더욱 심하다. 비교적 자주 사용되는 “之”·“使”·“以” 등 같은 문자는 모호하게 찍혀있고 또한 필획이 거칠고 굵어서 활자를 오래 사용한 결과 나타나는 현상인 듯하다. 이에서 刀刻術과 組版技術은 고명하나 먹물조제技術은 비교적 뒤떨어짐을 알 수 있다.

嘉慶年間에는 崑山 陳景川의 刻字局이 木活字로 陳元模의 「淞南志」(書影 14) 16권을 인쇄하였다. 陳元模는 乾隆 원(1736)년에 孝廉方正科에 급제하였고 그의 아들 陳煒는 乾隆 14(1749)년에 「續志」 1권을, 그의 손자 陳至言은 嘉慶 18(1813)년에 「二志」 2권을 각각 지었는데 모두 이 「淞南志」를 인쇄할 때 뒤에 부록으로 붙였다. 「二志」의 말미에 “玉峰陳景川刻字局擺板”이라는 字樣이 있다.⁷⁴⁾ 이 활자의 서체는 匠體인데 한결같이 가지런하며 아름다울만큼 刀刻術이 대단히 고명하다. 어떤 문자는 혹 서체를 달리 썼는데 예를들면 卷2 首葉上的 “望”字는 3종류의 서체를 사용하고 있다. 이는 저본을 쓰는 필사자가 자기의 흥미에 따라서 달리 쓴 결과가 아닌가 생각된다. 문자의 行과 列은 가지런하며 삐뚤어진 문자도 없다. 광곽의 네 모서리에 큰 틈 있기는 하지만 墨色이 비교적 균등하여 組版技術과 먹물조제技術이 고명함을 알 있다.

省園은 乾隆(1736-1795)·嘉慶年間에 宋本の 서체로 木活字를 제작하여 (宋) 范祖禹의 「帝學」 8권을 인쇄하였으니, 이는 곧 「藝風藏書續記」에 “宋活字本”이라고 저

72) 魏隱儒, 中國古籍印刷史, p. 232.

73) 張秀民, 清代的木活字, p. 108. 이밖에 淨雨, 清代印刷史小紀, 喬衍瑄·張錦郎公撰, 圖書印刷發展史論文集, 臺中: 史哲出版社, 1982, p. 355에는 嘉慶 25(1820)년에 「愛日精廬藏書志」 2권을 또 활자로 인쇄하였다고 하고 있자는 이 두 활자본이 하나의 같은 판본이 아닌가 한다.

74) 1. 張秀民, 清代的木活字, p. 116-117.

2. 北京圖書館原編, 勝村哲也覆刊編, 中國版刻圖錄, p. 103.

그것이다.⁷⁵⁾ 활자의 배열상태를 보면 대단히 우수하여 木板과 별 차이가 없다. 다만 界線이 만나는 곳에 연결한 흔적이 자못 분명하고 상하의 邊欄이 바르지 못하다. 조판할 때 본문의 활자를 界線보다 높게 심었기 때문에 대부분의 界線이 印出되지 않았다. 이 「帝學」에 대하여 혹자는 상하에 이어있는 문자의 필획이 교차하고 있는 현상을 들어서 活字本임을 부정하고 있는데, 양자의 주장이 각각 이유를 가지고 있으므로 확증을 찾아서 진일보한 연구를 할 필요가 있다.

7. 結 言

이상에서 서술한 바와 같이 明代 弘治年間(1488-1505)부터 銅活字印刷가 크게 유행한 이후 현존 활자본과 考究할 수 있는 활자본을 헤아려보면 이미 100여종에 이른다. 그 중에는 明代의 1,000卷에 달하는 「太平御覽」도 있지만 清代에도 초기에 이미 10,000여卷에 달하는 「古今圖書集成」이 있었으며 乾隆 이후에도 여전히 활발하였다. 이러한 清代 前期의 活字印刷 연구에서 나타난 특징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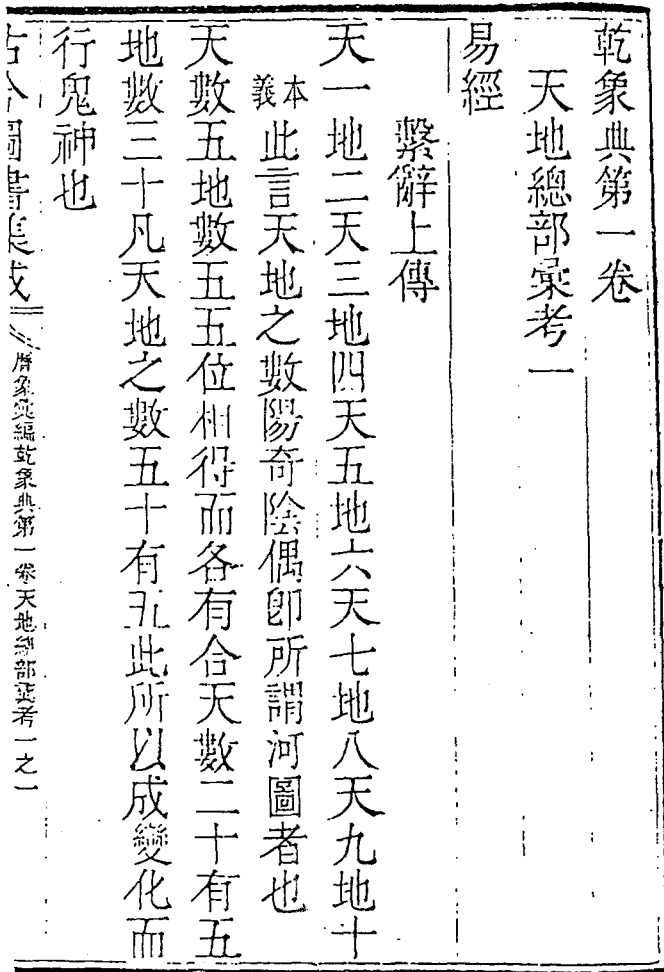
- (1) 活字印刷의 主體: 활자인쇄의 주체는 中央政府인 宮廷을 비롯하여 書肆와 書院 및 민간의 개인까지도 서적을 인쇄할만큼 보급되었다.
- (2) 活字本의 內容: 활자인쇄의 대상이 되었던 서적의 내용은 매우 풍부하여 經·史·子·集에 걸쳐서 모두 망라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武英殿聚珍版叢書」를 제외하더라도 經學·史部·子部를 비롯하여 역대의 詩文別集과 소설 등의 문학 작품·類書·천문·수학·음악류 및 정부의 官報까지를 포함하고 있다.
- (3) 銅活字의 유행地域과 印刷技術: 清代의 銅活字本은 비록 明代보다는 많지 않지만 北京·江蘇 및 臺灣에까지 유행하여 지역적으로 광범위하게 퍼져갔으며 활자인쇄의 규모나 製作技術의 정교함도 明代보다 훨씬 우수하였다.
- (4) 木活字 및 磁活字의 유행地域과 時期: 木活字의 유행지역은 더욱 광범위하여 北京·江蘇·浙江·安徽·四川· 및 福建 등지에까지 성행하였으며 山東에서는 磁活字까지도 서적인쇄에 응용하여 (宋)畢昇의 膠泥活字를 계승하였다. 그러나 清代의 前期에 中原지역에서 유행한 것은 대부분이 木活字이고 시기적으로는

75) 魏隱儒, 中國古籍印刷史, p. 230-231.

乾隆年間 이후에 주로 사용되었다.

- (5) 活字印刷의 技術: 印刷技術에 대하여는 기본적으로 畢昇의 방법을 사용하였다. 그러나 활자의 製作技術에 있어서는 서체의 미관까지도 표현할 수 있을만큼 숙련되었다. 組版技術에 있어서도 木板本과도 능히 견줄 수 있을만큼 그 수준이 향상되었다. 먹물조제技術도 역시 간혹 類書나 叢書 등의 거질에서 작업량이 많은 탓인지 墨色이 고르지 못한 경우가 있었으나 活字發明 초기에 墨汁을 개발하지 못하여 인쇄에 실패하던 경험에 비추어 보면 장족의 발전을 이룩한 것이다.
- (6) 活字本の 校勘態度: 교감작업도 대체로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간혹 영리를 목적으로 한 書肆에서 인쇄한 서적이나 거질의 경우 공기에 쫓긴 나머지 소홀히 한 경우도 없지 않았으나 교감의 여러 방법을 응용하면서 부단히 오류를 정정하려는 태도를 보여 오늘날의 귀감이 될만하였다.
- (7) 政府의 影響: 끝으로 清代 초기에 內府에서 銅活字로 인쇄한 「古今圖書集成」을 보면 거질임에도 불구하고 活字의 製作·組版·印出 등 모든 印刷技術的 측면에서 아무런 어려움이 없었던 점으로 미루어 정부의 지원이 活字印刷技術의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한다는 사실도 알 수 있다.

8. 書 影



〈書影 1〉古今圖書集成，清康熙59年-雍正4年間內府銅活字印本，乾象典 第 1卷 首葉上。
(20.6×13.6cm)

唐眉山詩集卷第六

五言排律

十四

峽路十韻

上馬復下馬羸軀不暫停鈴聲今古道柳色短長亭
 亂石波翻雪洪崖岫破青羊歸泂絕壁鹿飲入寒汀
 兩岸渾遮月中天略見星雲來通玉壘江去背滄溟
 春少花難拆霜多葉易零愛山猶著物畏棧未忘形
 事業知安在艱危已備經宦遊方此始何日遂鴻冥

十四

上益昌守李大夫

標致自清流知名二十秋諸儒堂上席羣客帳前籌

三十三

三十三

一

成造木子

聚珍版擺印書籍固稱簡捷然以數十萬散字中掇輯
 成章其木子大小難以畫一若逐字鏤削又事繁則工
 費故製造木子之法利用棗木解板厚四分許豎裁作
 方條寬一寸許先架疊曬乾兩面用鏤取平以淨厚二
 分八釐為準然後橫截成木子每個約寬四分豫以硬
 木一塊長一尺四寸寬一寸八分中挖槽一條內寬一
 寸深三分底牆欲平直外牆以鐵鑲口下首兩牆挖空
 寸許將木子數十個仄排槽內用活門擠緊鏤之以平

武英殿聚珍版

成造木子

一七

〈書影 3〉 武英殿聚珍版程式。清乾隆41年武英殿聚珍版木活字印本。成造木子 第15葉上。
 (18.4×11.8cm)

農書卷三

元 王 禎 撰

農桑通訣三

鋤治篇第七

傳曰農夫之務去草也芟夷蘊崇之絕其本根勿使能
 殖則善者信音仲矣蓋稂莠不除則禾稼不茂種苗者不
 可無鋤芸之功也又說文云鋤言助也以助苗也故字
 從金從助凡穀須鋤乃可滋茂諺云鋤頭自有三寸澤
 也詩曰其鋤音博斯趙以薶茶蓼鋤芸田器古之鋤其今

農書

卷三

孝經
卷三

劉曜雲校

則縱橫放肆淪胥爲惡矣女子之思歸人之常情也然
父母既終無歸寧之道嫌疑所在何可不謹古者女子
許嫁而笄非有大故不入其門既嫁而返兄弟弗與同
席而坐弗與同器而食所以別嫌明微防于未然者若
是其嚴哉父母猶在歸于親旁安慰其心禮所當然也
父母既歿兄弟雖我同氣非有鞠養劬勞之恩其又可
歸乎歸若未害也然此心一縱或至于不保其身則害
莫大焉漢史所謂知其非禮而不能自還者是也齊襄
公鳥獸之行瀆亂禮經詩人至以雄狐目之亦惟姜氏

得刑言尙 卷二 二項家達按

經字必鼎後乃啓二尊之蓋鼎同從注

七○注曰古文柅作七監本七誤作上從諸本

侈○經曰主婦被錫衣移袂按釋文云侈本又作移昌

爾反從釋文

作○注曰今文辯爲徧按釋文云作徧從釋文

直於○經曰置于膚北按釋文云直於音值下注直室

同今改二字從釋文

食○注曰先飲啗之按釋文云先食作飲飯者皆非案

本脫先字皆字疏亦作食特牲饋食注亦曰先食啗

今據釋文補正

婺源山水遊記卷一

紫陽山長周鴻子羽輯



大鄣山

大鄣山一名率山距城西北百二十里高千四百仞周百
里磅礴崑巒巔有振衣峯西矚彭蠡北眺黟山東望黃山
南瞻信州雅山如乘白雲上天際婺源羣山祖之山上清
風嶺瀑布泉白雲菴須彌菴那伽井龍井張公洞昔有張
公修煉于此俗遂以張公山名之旁有仙人藥白天生棋

婺源山水遊記

卷一

一

婺源紫陽

紅樓夢二十七回

滴翠亭楊妃戲彩蝶

埋香塚飛燕泣殘紅

話說林黛玉正自悲泣，忽聽院門響處，只見寶釵出來了。寶玉
 襲人一羣人送了出來，待要上去問着寶玉，又恐當着衆人問
 羞了寶玉，不便因而閃過一傍，讓寶釵去了。寶玉等進去，關了
 門，方轉過來，尙望着門洒了幾點淚，自覺無味，轉身回來，無精
 打彩的，卸了殘粧。紫鵲、雪雁素日知道林黛玉的情性，無事問
 坐不是，愁眉便是長歎，且好端端的，不知爲了什麼，常常的便
 自淚不乾的。先時還有人解勸，或怕他思父母，想家鄉，受委曲
 用話來寬慰解勸，誰知後來一年一月的，竟常常如此，把這個

紅樓夢二十七回

紅樓夢引言

一是書前八十回藏書家抄錄傳閱幾三十年矣今得後四十回全成完璧緣友人借抄爭覩者甚夥抄錄回難刊板亦需時日始集活字刷印因急欲公諸同好故初印時不及細校間有紕繆今復聚集各原本詳加校閱收訂無訛惟識者諒之

一書中前八十回抄本各家互異今廣集核勘準情酌理補遺訂訛其間或有增損數字處意在便於披閱非敢爭勝前人也

一是書沿傳既久坊間繕本及諸家所藏秘稿繁簡岐出前

京畿金石考卷上

賜進士及弟刑部直隸司員外郎孫星

順天府

大興 宛平 良鄉 固安 永清 東安 香河 通州

三河 武清 寶坻 寧河 昌平州 順義 密雲 懷

柔 涿州 房山 霸州 文安 大城 保定 薊州

平谷

晉王密立魏征北將軍建威鄉景侯劉靖碑

元康四年九月刻石見水經注云濕水逕薊縣故城南大城

東門內道左有魏征北將軍劉靖碑晉刊隸校尉王密表靖

京畿金石考卷上

<書影 10> 京畿金石考. 清乾隆年間問字堂木活字印本. 卷上 首葉上.. (16.7×11.0cm)

甫里逸詩

里人同集

馬起城字謙字號貳師明季人天啓時從桂王
封得宜陽簿年七十八致仕有長鳴草一卷藏
馬澄川家

贈別薛浩生

衰年易為淚况值生別離別離非異鄉亦胡足深
悲之別非知己涕泗亦何為浩生薛季子少小同
襟期曠違將十載無時不懷思懷思無由見瞥然
遇京師談心驚且滄對匡信還疑風塵共奔走總
為名利馳機緣偶相值兩人稍舒眉君能附驥尾

甫里逸詩

馬一

馬一

太平御覽卷第十五

天部十五

氣

霧

霾

曠

氣

釋名曰氣猶愾也愾然有聲而無形也

易曰天地氤氲萬物化醇

又曰潛龍勿用陽氣潛藏

又曰精氣爲物遊魂爲變

精氣烟溫聚而成物聚極則散而遊魂爲變

又曰天地定位山澤通氣

禮曰仲春行秋令則其國大水寒氣總至

又曰三月之節是月也生氣方盛陽氣發洩勾者畢出萌

太平御覽

卷十五

一

續資治通鑑長編卷一

宋 李燾 撰

太祖

建隆元年春正月辛丑朔鎮定二州言契丹入侵北漢
兵自土門東下與契丹合周帝命太祖領宿衛諸將禦
之太祖自殿前都虞候再遷都點檢掌軍政凡六年士
卒服其恩威數從世宗征伐洊立大功人望固已歸之
於是主少國疑中外始有推戴之議

壬寅殿前司副都點檢鎮寧軍節度使太原慕容延釗
延釗初以殿前都虞候見將前軍先發時都下謹言將
順德五年三月不著邑里以出軍之日策點檢為天子士民恐怖爭為逃匿之計
惟內庭晏然不知

續資治通鑑長編卷一 宋 李燾 撰 癸日精磨

〈書影 13〉續資治通鑑長編。清嘉慶24年常熟張金吾愛日精盧木活字印本。卷1 首葉上。
(21.5×15.4cm)

淞南志卷之二

東吳後學陳元模燦辰氏編輯

山水

秦柱山 在淞南尙書浦之右上有烽火樓吳壽夢所築遣兵屯戍以防海寇秦時始皇帝東巡狩嘗登此望海故又曰秦望唐時薛據有登秦望山詩明時里人建堂三楹顏曰新茶軒爲遊息地樓與軒今俱廢周世昌曰按圖經秦望山在海鹽縣東十八里秦始皇登此望海秦柱山在崑山縣南三十里干墩浦高止二丈去海甚遠豈能望之耶盧公武郡志云

참고문헌

1. 原典

慶桂等奉勅撰. 1932. 清宮史續編. 北平, 故宮博物院圖書館校印.

龔顯曾. 亦圓臆牘.

光緒臺灣通志. 稿本.

金簡. 1983. 武英殿聚珍版程式. 紀昀等總纂. 景印文淵閣四庫全書. 臺北, 商務印書館. 第673冊.

托津等奉勅撰. 1899. 大清會典事例. 臺北, 臺灣中華書局影印.

葉德輝. 1974. 書林清話. 臺北, 世界書局.

吳長元. 1973. 宸垣識略. 臺北, 文海出版社.

王士禛. 1978. 池北偶談. 臺北, 新興書局. 筆記小說大觀 2編, 第8冊.

王禛. 農書. 臺北, 商務印書館. 萬有文庫第12集, 簡編500鐘內.

李圭景. 1959. 五洲衍文長箋散稿. 서울, 東國文化社.

2. 著述

屈萬里 昌彼得공저. 1978. 圖書板本學要略. 臺北, 華岡出版公司.

陶湘편. 1970. 故宮殿本書庫中華民國二十二年存目. 臺北, 臺聯國風出版社.

北京圖書館原編. 勝村哲也覆刊編. 1983. 中國版刻圖錄. 京都, 朋友書店.

北京圖書館편. 1987. 北京圖書館古籍善本書目. 北京, 書目文獻出版社.

史梅岑. 1977. 中國印刷發展史. 臺北, 臺灣商務印書館.

秀川. 1977. 中國印刷術史話. 홍콩, 商務印書館.

魏隱儒. 1984. 中國古籍印刷史. 北京, 印刷工業出版社.

張秀民. 1989. 中國印刷史. 上海, 上海人民出版社.

中國科學院圖書館편. 1994. 中國科學院圖書館藏中文古籍善本書目. 北京, 科學出版社.

저자미상. 1983. 中國古典文獻學. 臺北, 木鐸出版社.

저자미상. 1983. 中國科學文明史. 臺北, 木鐸出版社.

3. 論文

- 陶湘. 1929. 6. 武英殿聚珍版叢書目錄. 圖書館學季刊. 第 3卷 第 1·2合期.
- 萬國鼎. 1974. 古今圖書集成考略. 劉家璧 편. 中國圖書史資料集. 홍풍, 龍門書店.
- 沈文倬. 1961. 清代學者的書簡. 文物. 1961年 10期.
- 劉國鈞. 1981. 宋元明清的刻書事業. 學海出版社編輯部 편. 中國圖書板本學論文選集. 臺北, 學海出版社.
- 張淦. 古今圖書集成再考. 新中華. 第 4卷, 第 4期.
- 張秀民. 1981. 清代涇縣翟氏的泥活字印本. 學海出版社編輯部 편. 中國圖書板本學論文選集.
- 張秀民. 1979. 清代的銅活字. 喬衍琯 張錦郎 공 편. 圖書印刷發展史論文集續編. 臺北, 文史哲出版社.
- 張秀民. 1979. 清代的木活字. 喬衍琯 張錦郎 공 편. 圖書印刷發展史論文集續編. 臺北, 文史哲出版社.
- 田淵正雄. 1980. 清代木活字版印刷技術考. ビブリア, 제 75호.
- 錢存訓. 1985. 中國歷代活字本. 古籍鑑定與維護研習會專集編輯委員會 편. 吳哲夫 집행 편. 古籍鑑定與維護研習會專集. 臺北, 中國圖書館學會.
- 淨雨. 1982. 清代印刷史小紀. 喬衍琯 張錦郎 공 편. 圖書印刷發展史論文集. 臺北, 文史哲出版社.
- 朱家濂. 1981. 清代泰山徐氏的磁活字印本. 學海出版社編輯部 편. 中國圖書板本學論文選集.
- 胡道靜. 1983. 古今圖書集成情況 特點及其作用. 王秋桂 王國良 공 편. 中國圖書文獻學論集. 臺北, 明文書局.

ABSTRACT

The Type Printing of First Ch'ing Dynasty Term

Hyung-Jin Cho*

The type printing of first Ch'ing dynasty term in China is worthy to be studied because the type printing during that period included metal type, wood type, and clay type as well as the development phase was similar to Chosun dynasty culturally and technologically.

This paper studied typography during the first Ch'ing dynasty term, including Shunzhi(1662-1722), Yongaheng(1723-1735), Qianlong(1736-1795), Jiaqing(1796-1820) period.

The main results of the study is as follows.

1. The main body of type printing was bookstore, lecture-hall, and individual as well as the royal court that is the central government.
2. The content of type edition covers classics, history, philosophy, and literary works. Specifically, even though Wuyingdienjuzhenban series is excluded, the content includes study of the classics, class of the history, class of the philosophy, literature works that include collection works and novel and government official bulletin.

* Assistant Professor, Dept. of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Kangnam University.

3. The printing technique of bronze type was very popular in Beijing, Jiangsu, and Taiwan. It's scale and production technique was more elaborate than in Ming dynasty.
4. Wood type was very popular in Beijing, Jiangsu, Zhejiang, Anhui, Sichuan, and Fujian. In addition to wood type, chinese ware type was applied to book printing in Shandong. However, most of them were wood type and they were used after Qianlong period.
5. The production technique of type was skilled enough to present the fine view of a style of type. The typesetting technique was improved as much as woodblock printing. With regard to the making technology of Chinese ink, the light and darkness of chinese ink was not even sometimes. But, the technology was improved significantly when comparing with the failure experience of printing that chinese ink was not developed in early type invention.
6. In case that the book was printed in bookstore with the intention of profit and the number of book was large, the proofreading attitude was rough. However, overally, it was made correction carefully applying the various methods of proofreading.
7. The support of government made a great contribution in the area of all printing technology, including production, typesetting, and brushing of type.